

광명시,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본격화

3월 투자 보조금 지원 기업 모집 공모 추진

앵커기업 입주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구축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우선 내달 중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테크노밸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별 업종과 입지 적합성 검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분양 일정과 입주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앵커기업이 서둘러 입주할 수 있도록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조속

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일 박 시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에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총 245만㎡ 규모로 산업, 유통, 연구개발(R&D), 주거 기능이 복합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이다. △일반산업단지(97만㎡) △유통단지(29만㎡)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 △광명혁신지구(68만㎡)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 지구 내 신설 예정인 신안산선 학운역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 풍부한 산업 연계성을 갖춰 수도권 서남부 핵심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약 3



광명시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본격화에 나섰다. 2일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3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광명의 신성장 동력이다”라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광명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인천시, 설 연휴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다

12개 분야 종합대책 마련 등 비상 대응체계 돌입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증편

인천광역시 설 연휴 기간(14~18일) 동안 시민들이 명절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응급의료, 물가·소비, 성묘, 문화·여가 등 12개 분야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닌 시민들이 명절 기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원적산·만월산터널 통행료 무료 시행, 응급실 24시간 운영, 대중교통 증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연휴 5일간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설 연휴 귀성·귀경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선 운항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심야 운행을 연

장한다.

고속버스는 평시보다 8대8회, 시외버스는 9대9회, 연안여객선은 2척7회 증편 운행해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해당 기간에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 시간과 노선 정보는 코버스 또는 버스타고 앱메시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2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당번 약국,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시민들이

12개 분야별 설 연휴 추진 대책				
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물가	-명절 성수품 등 물가안정 관리대책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	환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비 점검 -환경오염 우려 지역 등 감시 강화	
교통	-버스, 여객선 등 증편·중회 운행 -안전교육 등 교통안전 추진	하도급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대금 조기 지급 등	
의료	-비상진료 및 당번 약국 운영 등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등 대책	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 방문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보호	
감염병	-비상 방역 상황반 및 격리병상 운영 -감염병별 집단발생 신속 대응 등	금수	-금수상황실 운영 및 시설 점검 -안전금수 및 금수 수요 대응	
성묘	-가족공원 정상 운영 및 온라인 성묘 -성묘객 편의시설 및 수송대책 등	공직 기강	-복무, 직무유기,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감찰 강화	
안전	-재난취약시설 안전예방 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등	120 콜센터	-민생정책 상담 등 특별 운영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번약국이나 문 여는 병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인천시 누리집,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계량위반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이용 캐시백 추가 지급,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방법과 환급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

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설 명절 성묘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묘객 분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인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군포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군포시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이에 군포시는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전문 컨설팅 제공과 점포 환경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

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물품 제작, 간판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키오스크 구입 등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스스로 점포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 사업에 참여한 한 관내 상인은 “컨설팅을 통해 가게 운영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간판과 내부 환경을 개선하면서 고객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3월 중순, 선정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경기도교육청 “학생은 촘촘하게 지원, 학교·교원 부담은 최소화”

경기도교육청이 내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

9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

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주요 운영 계획은 스도교육청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뢰 절차 간소화·스킨급 지원 및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개설·스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이다.

아울러 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한다. 학생지원 유관부서와 내부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수원시, 2025년 최우수 선정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행안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구·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에 중심이 되는 정량평가가 점수와 우수사례 발굴·특별회계 종합 관리에 따른 가점을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수원시는 경기 참채 등으로 징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525억 원 증가한 2911억 원을 징수했다. 또 세외수입 징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며 “각 부서가 협업하고 모든 공직자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해 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평택시, 설 명절 맞이 혜택 확대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경기도 평택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에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센티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 동안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설 명절 대목을 맞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초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화폐 사용자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이재준(앞줄 가운데) 시장과 간부 공직자들이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구현”

이재준 시장과 시 모든 공직자 청렴 행정 서약

경기도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9일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 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실천을 서약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

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 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며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